

## 초기 유식사상의 이숙개념에 보이는 인과론의 특징 김재권\*

I 들어가는 말. II 아비달마불교의 인과론과 이숙의 의의. III 초기 유식사상의 이숙개념과 인과론. IV 맺는 말.

요약문 [주요어: 인과론, 이숙, 상속전변차별, 종자, 알라야식, 이숙식, 식전변]

이 논문은 유부와 경량부의 인과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초기 유식사상의 알라야식과 활동식 사이의 긴밀한 인과관계에 의해 형성된 이숙의 개념에 보이는 인과론의 특징을 사상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알라야식은 종자설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는데, 특히 종자와 이숙의 개념은 아비달마불교와 유가행파의 인과론의 설명원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유부에서는 6인(六因)의 하나로서 ‘이숙인(異熟因, vipāka-hetu)’의 개념과, 경량부에서는 ‘상속의 특수한 변화(相續轉變差別, saṃtātiparināma-viśeṣa)’에 의한 이숙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논문은 유가행파의 인과론을 해명하기 위하여 알라야식과 이숙의 긴밀한 관계 및 식전변의 구조에 보이는 이숙(異熟, vipāka)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관련 텍스트의 기술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아비달마불교에서 유부와 경량부의 이숙개념이나 종자설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유식학파의 인과론은 세친의 식전변설을 통해 동시성(同時性)과 이시성(異時性)이 결합한 연쇄적인 이중인과의 구조로 변천되고 있음을 사상사적으로 조망하였다.

\* 능인대학원대학교 부교수. marineco43@hanmail.net

## I. 들어가는 말

초기 유가행과의 주요교설 가운데 ‘알라야식(alayavijñāna)’이라는 매우 독특한 개념이 있다. 알라야식이란 모든 업이 남기고 가는 잠재력, 즉 종자를 모두 축적해 가는 미세한 심층의식이고, 이때문에 ‘일체종자식’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 알라야식은 이숙(異熟, vipāka) 혹은 이숙식(異熟識, vipākavijñāna)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알라야식은 종자설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는데, 특히 종자와 이숙의 개념은 아비달마불교의 설일체유부(이하, 유부)와 경량부의 교설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종자와 이숙의 개념은 아비달마불교와 유가행과의 인과론의 설명원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유부에서는 6因의 하나로서 ‘이숙인(異熟因, vipākahetu)’이 있고, 경량부에서는 ‘상속의 특수한 변화(相續轉變差別, samtatipariṇāmaviśeṣa)’에 의한 이숙이 설해지는데, 유가행과에서는 알라야식과 활동식(轉識)의 사이에 생겨나는 변화가 이숙(異熟, vipāka)으로 불린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니시 기유(西 義雄, 1937;1938;1975)의 논의는 종자설과 관련하여 유부에서 유식으로의 발전과정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sup>2)</sup> 최근에는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곤도 신스케(近藤伸介, 2011;2015)의 연구는 종자와 이숙의 긴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아비달마에서 유식으로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sup>3)</sup> 한편 오다니 노부치요(小谷信千代, 1975)는 업의 이론과 상

1) 近藤伸介(2015) p. 19.

2) 西 義雄(1937;1938;1975)

3) 近藤伸介(2011) pp. 1-15; 近藤伸介(2015) pp. 19-36.

속전변차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세친의 ‘식전변(vijñāna-pariṇāma)’설의 형성과정을 추적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초기 유식사상의 종자 및 이숙의 개념과 관련된 인과론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주로 종자와 이숙의 개념이 소개되고 있는 아비달마불교의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이하, 대비바사론)과 『아비달마구사론』(이하, 구사론), 그리고 유가행파의 『유가사지론』(이하, 유가론), 『섭대승론』, 『유식30론』, 『성유식론』 등의 관련 기술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유부와 경량부의 인과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초기 유식사상의 알라야식과 활동식 사이의 긴밀한 인과관계에 의해 형성된 이숙의 개념에 보이는 인과론의 특징을 사상사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II. 아비달마불교의 인과론과 이숙의 의의

유부는 연기(pratītyasamutpāda)를 분석적으로 해석하여 ‘6因 · 4緣 · 5果’라는 독특한 인과론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6인과 4연’은 원인으로 ‘5과’는 결과로 규정된다. 이러한 유부의 인과론은 일찍이 사쿠라베 하지메(櫻部 建, 1969;1978)와 호도 카즈오(兵藤一夫, 1985)가 지적하고 있듯이, 유부의 초기 논서인 『식신족론』에서는 ‘4연’만이 설해져 있다.<sup>5)</sup> 특히 이 ‘4연’설은 『대비바사론』이

4) 小谷信千代(1975) pp. 73-76.

나 『구사론』에 의하면 경전 가운데 설해진 것으로 기술된다. 하지만 사쿠라베(櫻部 建, 1969)가 이미 지적했듯이 현존의 아함경에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sup>6)</sup>

한편 『발지론』이나 『대비바사론』 등에서는 ‘6인’이나 ‘5과’가 설해지고, 그 이후 『입아비달마론』이나 『구사론』에 이르러 ‘6因·4緣·5果’가 긴밀한 관계에 의해 유부의 대표적인 인과론으로 정립되었다고 한다.<sup>7)</sup>

그런데 초기의 유부에서는 주로 ‘4연’을 중심으로 인과론이 설명되는데, 이와 같이 ‘연’에 근거한 인과론은 유부 특유의 것만은 아니다. 팔리의 『발취론』(*Paṭṭhāna*)에서는 ‘24연’이 설해지고, 『사리불아비담론』에서는 ‘10연’이 설해지고 있다. 하지만 효도(1985)가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대비바사론』에서는 ‘4연’에서 ‘6인’설이 파생되면서 6인설을 중심으로 유부의 인과론이 새롭게 확립된다.<sup>8)</sup>

한편 경량부에서는 상속의 특수한 변화(상속전변차별, *saṃtati-pariṇāma-viśeṣa*)에 의한 이숙이 종자설과 관련하여 인과론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유부와 경량부의 이숙과 관련된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5) 櫻部 建(1969) pp. 112-113 ; 櫻部 建(1978) pp. 125-146; 兵藤一夫(1985) pp. 95-109 참조.

6) 櫻部 建(1969) p. 112.

7) 齋藤 滋(2006) pp. 167-168 참조.

8) 兵藤一夫(1985) p. 107; 齋藤 滋(2006) p. 168 참조.

## 1. 유부의 인과론에서 이숙인

유부의 대표적인 인과론은 ‘6인·4연·5과’설로 제시되는데, 이 가운데 먼저 ‘4연’설은 (1)인연(hetu-pratyaya), (2)등무간연(samanantara-p.), (3)소연연(ā lambana-p.), (4)증상연(adhipati-p.) 등이 고, 그 명칭으로 보아 식의 생기에 관한 조건(緣, pratyaya)의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sup>9)</sup>

또한 유부의 ‘6인’설은 ‘4연’설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4연설보다 더욱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4연설과 6인설을 관련시켜 분류하면, 즉 ‘4연’ 가운데 인연은 (1)상응인(samprayukta-hetu), (2)구유인(sahabhū-h.), (3)동류인(sabhāga-h.), (4)변행인(sarvatraga-h.), (5)이숙인(vipāka-h.) 등의 ‘5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증상연은 (6)능작인(kāraṇa-h.)과 관계를 가진다.<sup>10)</sup>

한편 ‘5과’는 (1)증상과, (2)사용과, (3)등류과, (4)이숙과, (5)이계과 등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유부의 ‘6인·4연·5과’ 가운데 주로 이숙인과 이숙과의 개념에 주목하여 유부의 인과론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유부의 이숙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유부의 이숙인은 『대비바사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 1】 : 이숙인 관련 기술 (취의)

(a) 어떠한 것이 이숙인(異熟因)인가? 이른바 모든 선하지 않은 것(不善)과 선한 것(善)의 유루법이다.<sup>11)</sup>

9) 兵藤一夫(1983) p. 773.

10) 兵藤一夫(1985) p. 95.

11) 『대비바사론』(TD 27, 80a20-21) : 云何異熟因. 謂一切不善及善有漏法.

(b) 숙성에는 2종이 있다. 첫째는 동류이고, 둘째는 이류이다. 동류에서 숙성이란 즉 등류과이다. 이른바 선한 것은 선한 것을 생기게 하고, 선하지 않은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을 생하게 하며, 무기는 무기를 생하게 한다. 이류에서 숙성이란 즉 이숙과이다. 이른바 선·불선이 무기의 과를 생하게 한다. 이 무기의 과는 선·불선의 이류인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숙이라고 불린다.<sup>12)</sup>

(c) 무기법에는 이숙과가 없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에 의해 다만 여러 불선과 선의 유루법, [즉] 이것만이 이숙인이다.<sup>13)</sup>

(d) 이숙과란 이른바 여러 불선과 유루의 선법이 생겨나게 하는 경우의 이숙이다. 원인은 선·악이지만, 결과는 다만 무기일 뿐이고, 이류로 숙성하기 때문에 이숙의 이름을 붙인다.<sup>14)</sup> (밑줄은 필자)

상기 (a)의 기술을 보면, 먼저 유부에서 이숙인은 선·불선의 유루법에만 한정되고 무루법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b)~(d)의 기술을 고려하면, 유부는 숙성이란 동류와 이류의 2종류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류에서 숙성되어 생기는 것을 이숙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선·불선이 무기의 결과를 생기게 할 경우, 선·불선의 유루법은 이숙인이 되고 무기의 결과는 이숙과가 된다. 이런 점에서 무기법에는 이숙과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숙이란 원인은 선·악이지만 결과는 무기, 즉 이류로 숙성하는 경우에 붙이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비바사론』에서 제시되는 유부의 이숙인에 관한 기술은 바수반두(世親)의 저술인 『구사론』(이하, *AKBh*)의 기술에서도 종자의 비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 
- 12) 『대비바사론』(TD 27, 98b5-10) : 熟有二種. 一者同類, 二者異類.  
 同類熟者即等流果. 謂善生善, 不善生不善, 無記生無記. 異類熟者即異熟果.  
 謂善不善生無記果. 此無記果從善不善異類因生故名異熟.
- 13) 『대비바사론』(TD 27, 99a13-14) : 無記法無異熟果. 由如是等種種因緣,  
 唯諸不善善有漏法, 是異熟因.
- 14) 『대비바사론』(TD 27, 629c7-9) : 異熟果者謂諸不善有漏善法所招異熟.  
 因是善惡果唯無記, 異類而熟故, 立異熟名.

## 【§ 2】 : 이숙인과 종자의 비유 관련 기술 (취의)

이숙인(異熟因, vipākahetu)이란 무엇인가?

**이숙인은 불선과 선의 유루만이다.** (2-54cd)

**이숙인은 불선과 선의 유루법이다.** 이숙이라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1)무기의 제법은 왜 이숙을 생기게 하지 않는가? 썩은 종자처럼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2)무루의 제법은 왜 [이숙을 생기게 하지] 않는가? 갈애에 젖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젖어있지 않은 견실한 종자와 같다. 실로 [삼계와] 결박되지 않은 [무기·무루의 제법]이 어떠한 [계와] 결박된 이숙을 생기게 할 것인가? [아니다, 생기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무기와 무루를 제외하] 나머지 [제법]은 [힘이 세고·갈애에 젖어 있는] 2종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숙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견실하고 젖어있는 종자와 같이.<sup>15)</sup> (밑줄은 필자)

상기의 밑줄 친 (1)과 (2)의 기술을 고려하면, 『구사론』에서는 종자의 비유를 통해 『대비바사론』보다도 더욱 구체적으로 무기법과 무루법은 이숙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무기법은 썩은 종자처럼 힘이 약하기 때문에, 또한 무루법은 갈애에 젖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숙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환언하면, 결국 유루법만이 견실한 종자와 같이 힘이 세고, 갈애에 젖어있기 때문에, 이숙을 생기게 하는 이숙인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사론』에서는 이숙인(異熟因, vipākahetu)에 대한 어

15) *AKBh(P)* p. 89, 16-21 : vipākahetuḥ katamaḥ/

**vipākahetur aśubhāḥ kuśalās caiva sāsravāḥ //2-54//**

akuśalāḥ kuśalasāsravāś ca dharmā vipākahetuḥ/ vipākadharmatvāt/ kasmād avyākṛtā dharmāḥ vipākaṃ na nirvarttayanti/ durbalatvāt/ pūtibijavat/ kasmān nānāsravāḥ/ tṛṣṇānabhiṣyanditatvāt/ anabhiṣyanditasārabijavat/ apratiśaṃyuktā hi kiṃ pratiśaṃyuktaṃ vipākaṃ abhinirvarttayeyuḥ/ śeṣās tūbhayaividhatvān nirvarttayanti/ sārābhiṣyanditabijavat/ ; 이종철(2015) pp. 309-110 ; 近藤伸介(2015) pp. 23-24 참조.

의해석을 둘러싸고,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먼저 ‘vipākahetu(이숙인)’을 ‘vipākasya hetuḥ(이숙의 원인)’로 분석하는 것은 ‘6경 Tatpuruṣa’로 이해하는 것이고, 즉 이숙이 결과임을 나타낸다. 한편 ‘vipākahetu(이숙인)’을 ‘vipāka eva hetuḥ(이숙이 곧 원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Karmadhāraya’로 이해하는 것이고, 즉 이숙 그 자체(=eva)가 원인임을 나타낸다. 『구사론』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해석방식이 의미상 같다고 한다.<sup>16)</sup>

결국 이숙이란 말은 의미상 이숙인과 이숙과 양쪽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숙이 이숙인(후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숙과(전자)를 의미하는지는 문맥에 따라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이숙이 인숙인과 이숙과의 이중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구사론』에서는 이숙인·이숙과와 삼세의 시간적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3】 : 이숙인·이숙과와 삼세 관련 기술 (취의)**

[과거세] 일세(一世)의 업에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이숙이 성숙한다. 그러나 [과거, 현재] 이세의 [업에] 또한 [미래세] 일세의 [이숙이 성숙한다는 일은] 없다. (a)원인에 비해 결과가 지나치게 저열한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 찰나의 [업에는] 다 찰나의 [결과가 있다]. 하지만 [다 찰나의 업에 한 찰나의 결과가 있다는]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b)이숙(=결과)이 업(=원인)과 함께 성숙하는 일이 없고, (c)[업의] 직후에 [성숙하는 일]도 없다. [업의] 직후 찰나는 등무간연에 의해 끌리기 때문이다. 실로 [상속의] 흐름에 의해 이숙인은 존재하고 [이숙과는 상속을 거쳐 성숙하는 것이다].<sup>17)</sup> (밑줄은 필자)

16) 이종철(2015) pp. 310-311.

17) *AKBh(P)* p. 90, 16-19 : ekādhvikasya karmaṇas traiyadhviko vipāko vipacyate/ na tu dvaiyadhvikasyāpy ekādhvikko mā bhūd atinyūnaṃ hetoḥ phalam iti/ evam(em. de bzhin du T. ; ekam P.) ekakṣanikasya



상기의 (a)의 기술을 보면, 먼저 결과가 원인보다 감소하는 일은 없고, 일세의 업인 이숙인이 삼세를 통해 이숙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b)와 (c)의 기술을 고려하면, 원인(=업)과 결과(=이숙)가 동시에 생기는 일도 없고, 원인의 직후에 생기는 일도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이숙인은 두 찰나이상의 상숙을 거쳐 결과를 생기게 한다는 因果異時的 인과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 2. 경량부의 상숙전변차별의 이론

『구사론』에서 ‘상숙의 특수한 변화(相續轉變差別, *saṃtatipariṇ-āmaṃviśeṣa*)’이론은 「근품」·「업품」·「과아품」의 3개소에서 논의되고 있고, 특히 그것은 「과아품」의 정의에 의해 명확하게 설명된다. 하지만 ‘상숙의 특수한 변화(*saṃtatipariṇāmaṃviśeṣa*)’이론은 「근품」과 「업품」의 기술과 「과아품」의 기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19)</sup>

이러한 ‘상숙의 특수한 변화’이론은 유부가 주장하는 취과(取果)의 기능을 삼세실유의 입장을 취하는 일 없이 설명하는 것으로서 경량부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사코 토시오(佐古年穗, 1997)의 견해를 빌리면, 「근품」과 「업품」에 보이는 이해방식은 경량부의 입장을 나타내고, 「과아품」의 해석은 세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20)</sup>

---

vahukṣaṇiko na tu viparyayāt/ na ca karmaṇā saha vipapako vipacyate  
nāpy anantaraṃ samanantarapratyayākṛṣṭatvāt samanantarakṣaṇasya/  
pravāhāpekṣo hi vipākahetuḥ/ ; 이종철(2015) pp. 313-314 ; 近藤伸介(2015)  
p. 24 참조.

18) 近藤伸介(2015) p. 24.

19) 佐古年穗(1997) p. 137.

특히 경량부의 ‘상속의 특수한 변화’이론은 이미 서성원(1996) 등의 논의에서 확인되듯이, 불교 내·외의 존재론적인 문제, 즉 자아(ātman)나 제1원인(pradhāna)을 전제로 세계의 전변을 설명하는 상카학과 등의 주장을 무아론적인 입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정립된 것으로 이해된다.<sup>21)</sup>

사실 이러한 ‘상속의 특수한 변화’이론은 종자설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유식30송』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세친의 식전변설의 이론적 근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세친이 「파아품」에서 제시하는 ‘상속의 특수한 변화’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 4】 : 상속전변차별 관련 기술 (취의)

마찬가지로 (1)결과는 업에서 생겨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결과)는 이미 멸한 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업의] 직후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업에서 결과가 생기는가]? 그것(=업)의 상속의 특수한 변화 때문에 [결과는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saṃtati)이란 무엇인가? 변화(pariṇāma)란 무엇인가? 특수(viśeṣa)란 무엇인가? (2)업을 선행조건으로 뒤이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상속이다. 그것(=상속)이 다른 모습으로 생기는 것이 변화이다. 더욱이 바로 그 직후에 결과를 생기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변화에 의해 차별화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특수한 변화이다.<sup>22)</sup> (밑줄은 필자)

20) 佐古年穗(1997) p. 140.

21) 서성원(1996) pp. 171-172.

22) *AKBh(P)* p. 477, 14-17 : evaṃ karmaṇaḥ phalam utpadyata ity ucyate/ na ca tad viniṣṭāt karmaṇa utpadyate nāpy anantaram eva/ kiṃ tarhi/ tatsaṃtatipariṇāma viśeṣāt/ kā punaḥ saṃtatiḥ kaḥ pariṇāmaḥ ko viśeṣaḥ/ yaḥ karmapūrvavuttarottaracittaprasavaḥ sā saṃtatis tasyā anyathopattiḥ pariṇāmaḥ/ sa punar yo 'nantaram phalotpādanasamarthaḥ so 'ntapariṇāma viśiṣṭatvāt pariṇāma viśeṣaḥ/ ; 이종철(2015) pp. 432-433; 近藤伸介(2015) pp. 27-28; 小谷信千代(1975) pp. 75-76.

상기의 밑줄 친 (1)의 부분을 보면, 업과 결과(=과보) 사이의 관계가 유부의 인과이론과는 달리 설명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부는 과거의 업에서 현재의 과보가 생긴다고 하는데 비해, 여기서 세친은 과보는 과거의 업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업의 직후에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요컨대 업의 인과관계가 상속의 특수한 변화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밑줄 친 (2)의 기술에서도 확인되듯이, 세친은 ‘상속의 특수한 변화’이론이란 업을 선행조건으로 마음의 상속(=연속체)과 그러한 상속의 특수한 변화(=작용능력)를 매개로 결과(=뒤이은 상속)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리는 경량부가 업의 본질을 마음의 현상인 의도(思, cetanā)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결국 업에서 결과가 생기는 과정에서 업의 영향이 동일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연속해가는 측면은 종자에 섭수되고, 한편 종자의 영향을 받아 상속에 특수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종자는 이숙인과 이숙과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한편 『구사론』에서는 경량부는 숙성이란 다음과 같이 이숙인에만 쓸 수 있고, 특히 상속의 특수한 변화이론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 5】 : 이숙과 상속전변차별 관련 기술 (취의)**

그러면, 이숙이란 어떠한 의미인가? [원인에서 결과로] 이류의 숙성(pāka)이 이숙이다. 그러나 다른 여러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에서 결과로] 동류의 숙성이 있다. [또한] 한 가지(=능작인)에 대해서는 그 양쪽이라고 비바사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숙인 이외의 여러 원인)에 숙성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숙성이란

23) 小谷信千代(1975) p. 76.

즉 상속의 특수한 변화(samtatipariṇāmaviśeṣa)에서 생기고, [하나의] 결과(phala-paryanta)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유[인]·상응인에는 상속의 특수한 변화에서 생기는 결과는 없다. 또한 동류인 등(=동류인·변행인)에는 결과의 끝이 없다. 풀 등이 반복하여 윤회가 있는 한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sup>24)</sup> (밑줄은 필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부는 『대비바사론』에서는 속성이 동류와 이류 양쪽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상기의 기술을 보면, 이러한 비바사사들의 견해는 부정된다. 요컨대 세친은 이숙이란 ‘因緣’에 속하는 ‘5因’ 중 이숙인(vipāka-hetu)만이 속성(pāka)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속성이란 ‘상속의 특수한 변화(samtatipariṇāmaviśeṣa)’에서 생기는데, 구유인·상응인·동류인·변행인 등은 결말로서의 결과를 가질 수 없고, ‘상속의 특수한 변화’만이 이숙인을 지니는 것으로서 결말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유부에서는 동류·변행인-등류과에 동류의 속성을 인정하지만, 경량부 혹은 세친은 이숙인-이숙과만에 속성을 인정하고 있다.<sup>25)</sup> 결국 경량부는 이러한 이숙(vipāka)의 개념을 ‘상속의 특수한 변화’이론에 교리적으로 내재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속의 특수한 변화’이론은 종자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경량부의 인과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4) *AKBh(P)* p. 89, 24-90, 3 : atha vipāka iti ko `rthaḥ/ visadr̥ṣaḥ pāko vipākaḥ/ anyeṣāṃ tu hetūnāṃ sadr̥ṣaḥ pākaḥ/ ekasyobhayaeti vaibhāṣikāḥ/ naiva tu teṣāṃ pāko yuktaḥ/ pāko hi nāma samtatipariṇāmaviśeṣajaḥ phalaparyantaḥ/ na ca sahabhūsaṃprayuktahetvoḥ samtatipariṇāmaviśeṣajaḥ phalam asti/ na cāpi samāgahetvādīnāṃ phalaparyanto `sti/ punaḥ punaḥ kuśalādy ā saṃsārāphalatvāt/ ; 佐古年穂(1997) p. 140.

25) 近藤伸介(2015) p. 26.

## 【§ 6】 : 종자와 인과관계 관련 (취의)

그러면 이 종자인 무엇인가? 그것은 직접적으로(sākṣāt) 혹은 간접적으로(pāraṃparyeṇa) 결과를 산출할 때 작용능력이 있는 명색(nāma-rūpa)이다. [결과의 생기는] 상속의 특수한 변화에 의한다. 이 변화(pariṇāma)란 무엇인가? 상속이 다른 상태로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상속(santati)이란 무엇인가? 인과관계를 가지는 삼세의 제행이다.<sup>26)</sup>

상기의 기술에서 확인되듯이, 종자(bija)란 어떠한 별개의 실체가 아닌 상속의 특수한 변화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결과(=과보)를 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심리적·물리적 유기체(名色, nāma-rūpa)를 말한다.<sup>27)</sup> 이러한 명색이란, 즉 오온의 복합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여기서 상속(santati)은 인과관계를 가지는 삼세의 제행이고, 결국 이러한 상속이 종자의 한 형태로서 상속의 특수한 변화에 근거하여 인과관계를 드러낸다고 본다.

이상에서 경량부는 유부의 6因 가운데 상속의 특수한 변화에 의한 이숙인(vipāka-hetu)을 제외하고 종자로 부를 만한 것은 없고,<sup>29)</sup> 또한 유부와 달리 별도로 ‘得·非得’의 역할이 없더라도 종자의 성격을 지닌 상속의 특수한 변화에 의해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속의 특수한 변화’이론은 유부가 주장하는 결과의 산출, 즉 取果의 기능을 삼세실유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30)</sup>

26) *AKBh(P)* p. 64, 4-6 : kiṃ punar idaṃ bijaṃ nāma/ yan nāmarūpaṃ phalotpattau samartham sāksāt pāraṃparyeṇa vā santatipariṇāmavišeṣāt/ ko 'yaṃ pariṇāmo nāma/ santater anyathātvam/ kā ceyaṃ santatiḥ/ hetuphalabhūtās traiyadhvikāḥ saṃskārāḥ/

27) 서성원(1996) pp. 167-169.

28) 서성원(1993) p. 27 ; 佐古年穂(1997) p. 139.

29) 近藤伸介(2015) p. 27.

### III. 초기 유식사상의 이숙개념과 인과론

앞에서 유부와 경량부의 업의 본질이나 성격과 관련된 인과론의 문제를 이숙개념의 이해방식을 매개로 살펴보았다. 경량부는 유부의 6因 가운데 이숙인의 개념을 상속의 특수한 변화이론에 종자설과 관련하여 포섭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가행파는 이러한 유부와 경량부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특히 알라야식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이숙의 개념이 변천하면서 전개되는 과정을 『유가론』과 『섭대승론』, 그리고 『유식30론』, 『성유식론』 등의 기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초기 유가행파에서 이숙의 개념은 아비달마불교와는 달리 알라야식의 異名으로 새롭게 정립되고, 이는 유식사상사에서 인과이론으로 정립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이숙의 개념은 세친의 저작인 『유식30송』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식전변(vijñāna-pariṇāma)설’에 대한 안혜의 주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숙의 개념이나 그 변천의 과정은 유가행파의 인과론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

30) 佐古年穂(1997) pp. 139-140.

## 1. 유식사상의 이숙개념과 인과론

유식사상의 3대 이론 가운데 하나인 알라야식설은 미세한 심층 의식으로서 아비달마불교의 종자설 등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정립된 것인데, 유식사상사에서 이숙개념과 함께 매우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면 우선 유가행과의 초기의 논서인 『유가론』 「본지분·오식신상응지」의 이숙과 관련된 기술을 살펴보기로 한다.

### 【§ 7】 : 일체종자식과 이숙 관련 기술

일체종자를 가지는 식이란 무엇인가. 이전의 회론을 즐거움으로 하는 원인에 의해 생기하는 일체의 종자를 가지는 이숙(異熟, vipāka)이다.<sup>31)</sup> (밑줄은 필자)

상기의 기술과 같이 『유가론』에서 알라야식은 일체종자식(sarvabīja-vijñāna)이나 일체의 종자를 가진 이숙(vipāka)으로 명확히 정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착의 『섭대승론』에서도 다음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진전된 형태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 【§ 8】 : 『섭대승론』의 이숙식 관련 기술 (취의)

(a)간략하게 말하면, 알라야식(kun gzhi rnam par shes pa)의 본성 그 자체는 일체의 종자(sa bon thams cad pa)를 가지는 이숙식(rnam par smin pa'i rnam par shes pa)이고, 그것에 의해 삼계의 일체의 신체와 일체의 환경이 섭수된다.<sup>32)</sup>

31) *YBh*, p. 4, 11-12 : sarvabījakam vijñānam katamat/ pūrvakam prapañca-rati-hetum upādāya yaḥ sarvabījako vipāko nirvṛtṭah//

32) *MSg*(D. 4048, ri.7a6-7) : mdor bsdu na kun gzhi rnam par shes pa'i ngo

(b)그 때문에 무엇이든 응결한 식(rnam par shes pa brgyal ba=알라야식)은 의식이 아니지만, 그것은 이숙식이고, 그것은 일체의 종자라는 것이 성립한다.<sup>33)</sup> (밑줄은 필자)

상기의 기술을 보면, 『섭대승론』의 기술에서도 『유가론』과 동일한 맥락에서 알라야식이 명칭 상 일체의 종자(sa bon thams cad pa)나 이숙식으로 불리는 것이 확인된다.<sup>34)</sup> 이때 알라야식의 본성이 이숙식으로 설명되는 점과, 그것이 일체의 종자로서 일체의 신체와 환경을 섭수한다는 점은 『유가론』 보다 더욱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유가론』 「섭결택분」(이하, 섭결택분)에는 ‘이숙생(異熟生)’이라는 기술이 확인되는데, 이는 알라야식과 활동식(轉識)의 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9】 : 「섭결택분」의 이숙생 관련 기술 (취의)

몇 가지의 종자가 이숙인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일체의 [종자]이라고 대답한다. ... 몇 가지[의 활동식(轉識)]이 이숙에서 생긴 것(이숙생)인가? 라고 묻는다면, 실로 일체라고 대답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숙생은] 종자를 섭수하는 것인 이숙(=알라야식)에서 생기기 때문이다.<sup>35)</sup> (밑줄은 필자)

bo nyid ni rnam par smin pa'i rnam par shes pa sa bon thams cad pa ste/ des khams gsum pa'i lus thams cad dang/ 'gro ba thams cad bsdu so//

33) *MS*(D. 4048, ri.9a5-6) : de'i phyir rnam par shes pa brgyal ba gang yin pa de ni yid kyi rnam par shes pa ma yin gyi/ de ni rnam par smin pa'i rnam par shes pa ste de sa bon thams cad pa'o zhes bya ba der grub bo//

34) 近藤伸介(2015) pp. 28-29.

35) D. 4038, zhi.91b2-3 : du zhig gi sa bon dag rnam par smin pa yin zhe na/ smras pa/ thams cad kyi'o// ... du zhig rnam par smin pa las skyes pa dag yin zhe na/ smras pa/ thams cad kho na ste sa bon gyis bsdu pa'i rnam par smin pa las grub pa'i phyir ro//



상기의 기술을 보면 알라야식은 일체의 종자를 섭수하는 이숙(異熟)이고, 이숙생(異熟生)은 이숙 즉 알라야식에서 생기하는 활동식(轉識)으로 이해된다.<sup>36)</sup> 이러한 의미는 한역에서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sup>37)</sup>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이숙과 이숙생을 준별하여 인과관계를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알라야식을 기반으로 이숙의 개념을 매개로한 유가행과의 인과론의 양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2. 유식학파의 인과론의 특징

앞에서 알라야식을 기반으로 한 이숙의 개념과 그 변천양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초기 유가행과의 인과론의 특징은 알라야식과 활동식(轉識)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생겨나는 이숙의 변화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세친의 『유식30』에 대한 주석서인 현장의 『성유식론』의 기술을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 【§ 10】 : 『성유식론』의 이숙관련 기술

(1) 등류습기를 인연으로하기 때문에, [제] 8식(=알라야식)의 [자]체가 상차별로서 생기는 것을 등류과라고 한다. 결과가 원인을 닮았기 때문이다. (2)-㉔ 이숙습기를 증상연으로 하여 제8식을 초감하고, [그와 같은 제8식은] 업을 견인하는 힘에 응하여 항상 상속하기 때문에 이숙이라고 이름한다. (2)-㉕ [이숙습기는] 전6식도 초감한다. 일체의 업을 따르는 자는 이숙(=알라야식)에서 생겨 이숙생이라 이름하지 이숙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끊어짐이 있기 때문이다. (3) 즉 앞의 이숙(=알라야식)

36) 近藤伸介(2015) p. 29.

37) 『유가론』(TD 30, 615a1-3) : 問幾有種子異熟. 答一切皆. … 問幾是異熟生. 答亦一切種子所攝異熟所生故.

및 이숙생(=활동식)을 이숙과라 이름한다. 결과가 원인과 다르기 때문이다.<sup>38)</sup> (밑줄은 필자)

상기의 기술을 보면, 먼저 밑줄 친 (1)‘등류습기’와 (2)‘이숙습기’는 안혜설과 비교하면 다소 불명확한 점도 있지만, 업과의 관계 속에서 ‘인전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상기의 (3)은 이숙(=알라야식, 원인)에서 활동식(=전6식) 즉 이숙생(결과)이 생겨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호법설과 비교하면 ‘종자생현행’의 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기의 (4)는 표현상 불분명한 점도 있지만, 종자와 현행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이중인과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식30송』에 대한 안혜의 주석에 보이는 알라야식에 근거한 두 전변의 개념은 내용상 이숙의 개념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 【§ 11】 : 식전변의 이중인과 관련 (취의)

[전변은 인과 과의 2종이다.] 이 가운데 (1)인전변(hetuparināmo)이란 아뢰야식 중에서 이숙습기와 등류습기가 성장하는 것이다. (2)과전변이란 이숙습기가 활동해서 전세의 업의 견인이 원만할 때에 아뢰야식이 다른 중동분에 생기는 것과 등류습기가 활동하므로 전식과 염오의가 아뢰야식에서 생기는 것이다.<sup>39)</sup> (밑줄은 필자)

38) 『성유식론』(TD 31, 7c5-11) : 等流習氣爲因緣故, 八識體相差別而生名等流果。果似因故。異熟習氣爲增上緣感第八識, 酬引業力恒相續故立異熟名。感前六識, 酬滿業者從異熟起名異熟生。不名異熟, 有間斷故。即前異熟及異熟生名異熟果。異果因故。

39) TrBh(L 18, 6-10) : tatra hetuparināmo yālayavijñāne vipākāniḥṣyandavāsanāparipuṣṭiḥ/ phalaparināmaḥ punar vipākavāsanāvṛttilābhād ālayavijñānasya pūrvakarmākṣepaparīsamāptau yā nikāyasabhāgāntareṣv abhinirvṛtṭiḥ/ niḥṣyandavāsanāvṛttilābhāc ca/ yā pravṛttivijñānānām kliṣṭasya ca manasa ālayavijñānād abhinirvṛtṭiḥ/

상기의 기술을 보면, 안혜의 견해에 따른 두 전변은 종자와 현행의 관계로 설명하는 호법설과는 다소 설명방식에서 차이가 엿보인다. 먼저 안혜의 인전변은 호법설과 비교하면 ‘현행혼종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 업과의 관계 속에서 암시되는 점은 엿볼 수 있지만 아직 불명확하게 여겨진다. 한편 과전변은 호법설과 비교해 보면 ‘종자생현행’과 ‘종자생종자’의 인과관계가 결합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안혜의 두 전변에 대한 설명방식은 호법의 견해를 빌리면 알라야식을 기반으로 한 종자와 현행의 상호 연쇄적인 이중인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sup>40)</sup>

그런데 안혜가 『유식30송』에 대한 주석에서 전변(pariṇāma)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이 전변이란 무엇인가? 전변이란, ‘다른 상태인 것(anyathātvam)’이다. 즉 [전변은] 원인의 찰나가 소멸함과 동시에 원인의 찰나와는 특질을 달리하는 결과자체가 발생하는 것이다”<sup>41)</sup>라고 설명하는 점은 이론적으로 이숙개념과의 긴밀한 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유가행과의 이숙개념과 식전변에 보이는 인과관계는 업과 시간성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동시적인 측면과 이시적인 측면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40) 김재권(2016) pp. 51-52.

41) TrBh(L 16,1-2) : ko 'yaṃ pariṇāmo nāma/ anyathātvam/  
kāraṇakṣaṇanīrodhasamakālah kāraṇakṣaṇavilakṣaṇaḥ  
kāryasyātmalābhaḥ pariṇāmaḥ/

## IV. 맺는 말

이상에서 아비달마불교로부터 유식에 이르기까지 이숙의 개념을 둘러싼 유부와 경량부, 그리고 유가행과의 견해와 설명방식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유가행과의 이숙개념에 보이는 인과론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부는 삼세실유의 관점에서 ‘득·비득’이라는 별도의 다르마를 상징하여 ‘6인·4연·5과’라는 연기를 분석적으로 해석하여 체계화한 독특한 인과론을 제시하고 있다. 유부는 이러한 인과론을 토대로 업과 존재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때 6인 중 이숙인-이숙과는 이시인과를 나타낸다.

둘째, 세친을 비롯한 경량부는 유부의 6인 가운데 이숙인만을 인과관계성의 원리로서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특히 이숙의 개념을 종자의 형태로 내재화한 ‘상속의 특수한 변화’이론을 고안한다. 이러한 이론은 유부가 주장하는 결과의 산출, 즉 取果의 기능을 삼세실유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유가행과는 아비달마불교에 있어서 유부와 경량부의 이숙개념이나 종자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알라야식을 기반으로 이숙(=알라야식)과 이숙생(=활동식)의 관계를 통해 재정립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이숙의 개념은 안혜와 호법의 견해를 고려할 때 세친의 식전변설의 형태로 새롭게 전개된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세친의 식전변설은 안혜와 호법의 견해를 빌리면 알라야식을 기반으로 한 종자와 현행의 상호 연쇄적인 이중인과의 구조를 보여준다. 시간적으로도 동시성과 이시성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유부의 이숙인-이숙과의 인과관계와 이숙의 개념을 종자의 형태로 내재화한 경량부의 상속의 특수한 변화이론에 보이는 인과론의 특징은 단층적인 이시인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유가행과는 알라야식설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유부와 경량부의 이숙개념이나 종자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유가행과의 인과론은 안혜와 호법의 견해를 고려하면 세친의 식전변설을 통해 종자와 현행의 상호 연쇄적인 이중인과의 구조를 보여준다. 사실 이것이 유가행과의 인과론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알라야식과 활동식의 상호 인과관계의 함의와 시간성 등의 관련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약호 및 참고 문헌

AKBh(P): *Abhidharmakośa-bhāṣya*(Vasubandhu), ed. by Prahlad Pradhan, 1967.  
 MSg: *Mahāyāna-saṃgraha*(Asaṅga)  
 TrBh(L): *Triṃśīkāvijñaptimātrasiddhi*, ed. by Sylvain Lévi, rep. 山喜房佛書林, 1925.  
 YBh: *The Yogācārabhūmi of Ācārya Asaṅga*, edited by V. Bhattacharya, University of Calcutta, 1957, P: No. 5536, D: No. 4035.  
 TD: 大正新脩大藏經  
 D: sDe dge ed.

『대비바사론』: 玄奘譯 『阿毘達磨大毘婆沙論』 100권, No. 1545, vol. 27.  
 『유가론』: 玄奘譯 『瑜伽師地論』 100권, No. 1579, vol. 30.  
 『성유식론』: 玄奘譯 『成唯識論』, No. 1585, vol. 31.

김재권(2016). 「초기 유식사상의 구조적 변화와 그 의의—이제와 삼성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26.

서성원(법경)

1993 「第一義空經과 Vasubandhu」, 『인도철학』 3.  
 1996 「『俱舍論』과 『成業論』을 통해서 본 種子(bīja)說」, 『伽山學報』 제5호.

이종철(2015). 『구사론—계품·근품·과아품—』,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小谷信千代(1975). 「saṃtatipariṇāmaviśeṣaと vijñānapariṇāmaについて」, 『印仏研』 47.

櫻部 建

1969 『俱舍論の研究』, 法蔵館.  
 1978 「アビダルマ仏教の因果論」, 『仏教思想』 3, 平楽寺書店, pp. 125-146.

西 義雄

- 1937 「唯識學上の種子法と其の淵源に就いて」, 『仏教研究』 1-2.
- 1938 「阿毘達磨論に於ける種子說に就いて」, 『宗教学紀要』  
第四卷.
- 1975 「阿毘達磨仏教に於ける種子說に就いて」,  
『阿毘達磨仏教の研究』, 国書刊行会.
- 兵藤一夫
- 1982 「『成業論』における異熟識說」, 『印仏研』 30-2.
- 1983 「『四縁についての一考察』, 『印仏研』 62.
- 1985 「『六因說』について一特にその成立に関して一」,  
『大谷学報』 244.
- 佐古年穂(1997). 「『俱舍論』における saṃtatipariṇāma-viśeṣa について」,  
『印仏研』 45-2.
- 箕浦暁雄(1999). 「説一切有部の因縁論一同類因・遍行因一」, 『印仏研』 47-2.
- 齋藤 滋(2006). 「初期アビダルマ仏教における因果論—四縁を中心に—」,  
『駒澤大学仏教学部論集』 37.
- 近藤伸介
- 2011 「『阿毘達磨大毘婆沙論』における種子の考察」,  
『仏教大学大学院紀要』 39.
- 2014 「瑜伽行派における因果同時說の確立について」, 『印仏研』  
62-2.
- 2015 「有部から瑜伽行派に至る異熟(vipāka)の変遷」,  
『仏教大学大学院紀要』 43.

Abstract

Characteristic of the Causality Theory as  
Shown in the Early Vijñaptimātravāda's Concept  
of "Ripening" (*vipāka*)

Kim, Jae-gweon

(Graduate School of Nungin)

This paper intends to explain characteristics of the causality theory as presented by the early Vijñaptimātra school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ripening" (*vipāka*), which is based on the intimate relation between *ālayavijñāna* and *pravṛttivijñāna*. Such relationship was noted by this school which critically followed the causality theories of the Sarvāstivāda and Sautrāntika schools.

In fact, the concept of *ālayavijñāna* is closely related to the *bīja* theory, in which the two concepts of *bīja* and *vipāka* have a particular significance as an explanatory principle of the causality theories of Abhidharma Buddhism and Yogācāravādin.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the concept of *vipākahetu*,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six causes by the Sarvāstivāda school. It also takes note of the concept of *vipāka*, which the Sautrāntika school associates with *saṃtatipariṇāmaśeṣa*.

Based on these two concepts, this paper carefully analyzes descriptions of the related texts in order to explicate



the causality theory of Yogācāra system. For this purpose, a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ālayavijñāna* and *vipāka* and also to the concept of *vipāka* as appearing in the structure of *vijñānapariṇāma*.

In conclusion, this paper clarifie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of thought that Yogācāra's theory of causality, which critically followed the Sarvāstivāda's concept of *vipāka* and the Sautrāntika's theory of *bīja* in Abhidharma Buddhism, has transformed into the structure of double causalities that combines both simultaneity and heterochrony through Vasubandhu's theory of *vijñāna-pariṇāma*.

**Keywords:** Causality Theory, *vipāka*, *saṃtatipariṇāmaviśeṣa*, *bīja*, *ālayavijñāna*, *vipākavijñāna*, *vijñānapariṇāma*

투고 일자 : 2017년 3월 31일

심사 기간 : 2017년 4월 5일 ~ 23일

게재 확정일 : 2017년 4월 24일